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해고자소식

<19호>

원직복직 쟁취!  
구조조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 발행일 : 2018년 04월 23일(월)

▷ 발행인 : 이환태, 최병률, 한근우

## 해고자들은 투쟁하고 싶습니다! 해고자들을 지켜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지난 20일 해고자들과 대의원 5명, 그리고 지회장 동지를 비롯한 지도부 동지들이 참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고자들은 생계비를 끊고 천막농성을 중단하라는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건을 발의했던 대의원들은 천막농성이 조합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을 이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 해고자 생계비 끊는 결정, 노동조합을 약화시킵니다!

해고자의 생계비를 끊는 결정은 단지 해고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2,8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우리 노조가 세 명의 해고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가 우리 노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간담회에서 대의원들은 작년 지도부의 사측 유착, 원청 핫라인 등 지도부의 비리 사태가 터졌을 때 해고자들이 낸 선전물을 얘기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노동조합을 혁신하자는 주장이 과연 잘못된 주장입니까?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 이후 일부 대의원들은 계속 작년 사태를 거론하면서 해고자들이 노동조합을 분열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노동조합에 비판의 자유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고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해고자를 찍어 누르는 맥락에서 진행된 결정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규약위반을 떠나 해고자 투쟁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 천막농성은 자본과의 투쟁입니다!

지난 7개월 힘들게 버텼습니다. 임단투 합의까지 천막농성을 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사전에 지회장 동지에게 천막농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회장 동지도 공감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도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게 맞고 집행부에서 철

거는 못한다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많은 노동자들이 묻습니다. 해고자들이 투쟁하겠다는데 그것을 막는 노조가 어디 있느냐고?

조합원 동지들! 천막농성은 자본에 맞서려는 해고자들의 의지입니다. 천막농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게 과연 누구겠습니까? 천막농성이 조합원들에게 그 어떤 피해를 주었습니까? 아무리 대의원대회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고자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해고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지 말아주십시오. 천막농성 이외의 다른 투쟁에 대해서도 집행부 동지들과 논의하고, 더 힘 있게 투쟁하겠습니다.

### 지회의 고립을 막아야 합니다

4월 2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폐기 못하면 우리 지회는 민주노조운동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해고자들은 해고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기도 하지만, 지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자들이 이 문제를 알리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지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폐기되지 않으면, 지회는 해고자 핑개치는 어용노조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지회는 정규직화 투쟁을 비롯해 수많은 투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누가 선뜻 연대하려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의결기구를 무조건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된 결정이고,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자들도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지회의 투쟁에 더 앞장서겠습니다. 해고자를 배제하는 결정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투쟁할 수 있고, 지회도 민주노조운동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직접고용, 노조활동 보장 합의 현대제철 비정규직도 할 수 있다!

얼마 전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문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이 철용성 같은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 방침을 무너뜨리며 직접고용에 합의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과 최근 검찰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삼성그룹을 압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민주노조를 지켜내고자 했던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폐업과 해고 등 술한 탄압을 견뎌낸 삼성 동지들의 끈질긴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밀려드는 노조가입 물결, 기회가 왔다.

노사가 직접고용에는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남아있다. 삼성자본은 노동자들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는 데 온전한 정규직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자본가는 어디에도 없다.

다행히 직접고용 합의 이후 이들 사이에 250여명

이 지회에 가입하는 등 조직화가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회는 이달 말 까지 2,000명 조직화를 목표로 나아가서 모든 노동자가 의무 가입하는 유니온샵을 쟁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바야흐로 대대적인 조직화의 바람을 타고 삼성자본과 맞짱 뜬다면 정규직화 쟁취도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 현대제철 자본도 기다려라!

삼성의 작업복을 입고 삼성의 제품을 수리하면서도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삼성 동지들의 처지는 우리의 현실과도 꼭 닮아 있다. 심지어 원청이 노무관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것조차 마찬가지다.

삼성 동지들은 그동안 근로자지위확인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장인 삼성자본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끈질기게 이어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아갈 길도 명확하다. 원청 사용자성 쟁취를 목표로 투쟁의 전망과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 노동자통제용으로 쓰이는 PDA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운송사의 장비에는 PDA가 장착되어 있는데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기능까지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 현대제철은 제품 생산부터 출하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며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구내 물류운송 시간을 단축한다며 모바일기기와 GPS를 활용한 물류 트래킹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그런데 물류 트래킹 체계는 운송시간을 줄이겠다는 원래의 취지보다 운송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운송 장비가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되다보니 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까지 모니터링 되는 것이다.

### 장비는 쉬면 안 된다, 그럼 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제에서 연락이 온다. 작업이 안 되고 있는 사유를 묻고 상황이 생기면 보고하라고 한다. 또 장비 운행 도중에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장비를 세워놓고 화장실에 갔는데 왜 장비가 거기에 서 있느냐며 전화가 온다. 대주중공업 소장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여주면서 특정시간에 왜 장비가 모여 있느냐며 현장노동자들에게 문제를 삼았다. 이게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

### 감시 장비는 없어져야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운송사측은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제철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할뿐 그로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는 관심조차 없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은 노동자의 작업수행 데이터까지 수집되기 때문에 사측은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금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데 쓰여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업장 내 감시 장비의 확대는 본연의 취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오로지 사용자의 이윤을 늘리는데 쓰일 뿐인 감시 장비는 없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힘이 필요하다.